

“인성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한다”

불교계, 상담·명상·사경 등 프로그램 다양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2월 초 정부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학교에서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강연, 인성교육 등 다양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에 불교계도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는 ‘나를 찾는 선’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교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방학기간 동안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호흡명상, 사경, 오감명상, 참회발언, 마음수련 등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구성됐지만, 불교색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비불자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해 ‘나를 찾는 선’ 지도자 과정에 참가한 김명옥(서울 용산중) 교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어 좋았다. 학생들한테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현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명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처음에 다들 낯설어 했지만 점차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라미타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과 함께 ‘나를 찾는 선’을 일선 학교에서 실천 수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포교원은 지난 3월 8일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청소년심성프

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신규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선정된다.

포교연구실 정현열 상임연구원은 “6월 중순 경으로 신규프로그램이 확정될 것”이라며 “확정된 프로그램은 중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심성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파라미타는 전통문화유산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청소년문화제지킴이 >중국청소년 교류 및 장보고 문화탐방 >문화재모니터활동 등을 통해

파라미타 ‘나를 찾는 선’ 과정 인기

중등학교 정규과정에 활용 추진

진한 감동과 가족에 느끼는 것 중요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와 사상을 익혀 자신의 인성을 되돌아보게끔 한다.

한마음과학원(원장 대명)의 ‘한마음인성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내면의 알아차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음’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마음관찰 >올라오는 마음 멈추게 하기 >올라온 마음 긍정으로 바꾸기 >다시 내 마음 바라보기 등의 단계로 구성돼, 입시



학생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명상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줘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다.

경쟁에 놓인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복지재단)은 서울 시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업 및 문화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올리브명상 상담센터(대표 성부현)는 ‘마음이 밝아지는 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지 체험학습을 통해 알려준다. 명상,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타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길러준다.

당시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동대부고 박진형(가명·18)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이 재밌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비롯한 친구, 가족들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

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학주 동대부여중 교사는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 공통점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불교계에 시행되는 인성프로그램들이 진한 감동과 가족애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 등을 통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조한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은 “>해거스님 집중명상 >용타스님의 동사점 >인경 스님의 오감명상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등 불교계에는 이미 불자들 사이에서는 입증됐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 프로그램들이 사찰 뿐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조명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08배’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

포교원, 26일 모바일 포교콘텐츠 공모전 시상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모바일 포교콘텐츠 공모전에서 전규찬, 김효용 씨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앱 ‘108배 생활도우미’, 박찬기 씨가 개발한 ‘키즈부터 모바일 웹’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포교원(원장 지원)은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108배 생활도우미’는 발원문과 목탁 소리, 수행일지 작성 등의 기능을 갖춰 불자들의 108배 수행을 돕는 모바일 앱이다. ‘키즈부터’는 어린이용 모바일 웹으로 >불교가 궁금해요 >배움마당 >나눔마당 >멀티미디어 마당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키즈부터에 포함된 ‘스님지키기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불교의 심오한 철학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폰을 이용해 활용할 수 있는 포교콘텐츠라고 생각한다”며 “내 마음 속 걸작을 만든다는 각오로 함께 동참해 줘 고맙다”고 말했다.

우수상 수상자 박찬기 씨는 “불교가 최신 미디어를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이디어상에는 ‘엄지법당’(성기백 등 4명), ‘부다 락’(김연옥), ‘스님지키기 게임’(박찬기)을 선정했다. 대상인 포교원장상은 수상작을 선정하지 못했다. 우수상에는 상금 150만원과 상장, 아이디어상에는 상금 50만원과 상장 수여됐다. 포교원은 이번 수상작을 무료 배포하며 올 하반기 모바일과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포교원(원장 지원)은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실에서 2012모바일 포교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교계 지도자 ‘공무원 멘토’ 나선다

일면·정호·요청 스님 불교계 멘토 담당

불교계 스님들이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고충을 겪는 공무원들의 멘토로 나선다. 경기도청은 4월 16일 공직자 멘토를 선정, 경기도청에서 위촉장을 전달했다. 공무원 멘토링은 존경받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고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망 및 일반 공무원들의 자신감 회복을 돕고 가치관 확립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종교지도자 멘토풀(mentor pool)에는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정호 스님(옹주사 주지), 요청 스님이 선정됐으며 개신교 김영진 목사, 김정일 목사, 김미라 목사, 천주교 이영배 신부, 한만옥 신부 등 15명도 포함됐다. 종교지도자들은 도청사 내에 마련된 멘토방에서 1:1로 상담하며, 전화와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여성결혼이민자 자립능력 키울 것”

지혜로운여성,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나서

지혜로운여성(이사장 김애주)이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 적극 나선다. 지혜로운여성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언어·경제·자녀문제 해소를 위해 6~11월까지 취업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프로젝트 주요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교육 및 지역 사회 과전·강사활동’ ‘가족애착놀이 활동 교사용 지침서 제작’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강사 양성 교육 이후, 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 ‘가족애착놀이 활동 교사용 지침서’를 3개 언어로 제작해 강사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2년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선정 공모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취업지원 사업이다.

김현일 지혜로운여성 과장은 “프로젝트는 여성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맞춤 직종을 개발해 지역사회 내 서비스일자리를 연계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 참가여성들과 다문화봉사단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경험 나누면 세상이 바뀐다

조계종 복지재단, 청소년 의지나눔 5기 입학식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4월 23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 5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서울 시내 중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모집한 소외계층 중학생과 동국 108리더스 봉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 의지나눔 참가자들은 ‘표현은 행복의 시작’을 주제로 한 김보성 강사(재미캠퍼스 연구소 실장)의 웃음스트레칭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소년 폭력 예방 선언문’ 낭독을 통해 학교 폭력 근절의 동참 의지를 다졌

다. 종선 스님은 “보다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만남을 통해 경험과 마음을 나누며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업군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봉사자 개인의 경험을 자원으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다양한 직업군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5기 학생들은 바리스타, 요리사, 가드너 등 전문직 봉사자와의 만남, 직업특강, 문화나눔, 캠프를 통해 꿈을 찾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할 예정이다. (02)723-5101

이내나 기자

김연아나무 마가목



숙취해소



불자를 위한 불자의 기업
주식회사 **자운** www.jawoonfood.co.kr
전국총판 / 대리점 모집 TEL 053)311-2676~7

- ❖ 백세팔팔: 국내특허 10-07071300(마가목 차음료) 상표출원번호: 40-2012-0015906
- ❖ 청명천: 국제특허 PCT/KR2004/003474(숙취해소) 국내특허 10-0663952(숙취해소)
- ❖ 갯바위 생식: 식사 대용식
- ❖ 오채 단이슬: 국내특허 10-0663948(아채 미용음료)
- ❖ 오과 단이슬: 국내특허 10-0663947(과일 미용음료)

회원 모집



자/비/실/천
갯바위자비회

www.g-jabi.or.kr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476번지

☎ 053)311-2675 (대구사무실)